



정신적인 “戀人”도 불륜이다

오재호/극작가 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

1996년 10월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 김용환 재판장은 기막힌 판례를 남깁니다. <부부간의 정조의무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. 비록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는 등등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부부는 이혼하고 애인과 함께 위자료 3천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.>

상당히 많은 사람들... 그러니까 누군가는 깜짝 놀랄 판례를 남겼습니다.

바로 이런 경우입니다. 정확하게 말해서 지난 달 첫째 월요일입니다. 결혼하지 겨우 3개월 된 신혼부부가 이혼법정에 섰습니다.

“앨범에는 첫사랑의 애인인가 뭔가 하는 남자의 사진이 수두룩하고요, 주고 받은 연애 편지가 수백 통이나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고요, 잠자면서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나, 심지어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자의 이름을 부릅니다.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? 난 죽어도 같이 못 삽니다.” 물론 앨범이며 보관되어 있는 연애편지도 증거품으로 제출되었습니다.

아마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여자가 어디있겠느냐고 의아해 할 것입니다. 하지만 실제 사건입니다. 또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입니다. <좋은 부모 되기 운동본부>에서 20대 신혼 부부 남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.

“첫사랑의 애인이 있었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밝힐 수 있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남자 46%, 여자

는 86%가 <그렇다>고 응답하고 있습니다. “첫사랑과 혼전 육체관계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남자 15%, 여자 47%가 <그렇다>고 대답하고 있습니다. “배우자가 잠꼬대로 애인 이름을 불러도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?”라는 질문에 남자 33%, 여자 88%가 <살 수 있다>고 응답했습니다. 여자 쪽이 대단히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20대 부부들의 사랑은 좋게 말해서 자유스럽고 개방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럽고 아전인수격인 사랑입니다. 적어도 이

혼법정에서는 한가지 불문율이 있습니다. 설사 두 남녀가 호텔방에서 현장을 잡혔다고 해도 “우리는 절대로 육체관계는 갖지 않았다.”고 끝까지 주장해야 합니다. 이것이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입니다. 서로 용서를 청하고 베꿀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. 만일 “그래, 우리는 수십번 함께 잤다. 어쩔 테냐?”라고 선언했을 때는 용서를 청하고 베꿀 수 있는 마지막 고리가 없어

집니다. 또한 결혼 전에 앨범을 정리하고 연애 편지도 정리해 주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예의입니다. 부부는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지만 사소하다는 이유로 그 상처는 치유할 길도 없습니다. 이것이 큰 병입니다. 이혼의 주범은 아주 작은 상처로 부터 시작됩니다. 그래서 부부는 “미안하다”는 말 대신 “용서하세요”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야 합니다. 부부가 서로에게 “사랑한다” 혹은 “미안하다”는 말을 할 수 있지만 “용서하세요”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못하는 이유를 곱씹어 보길 바랍니다. PPFK

